



Kurdish Organizations Network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KONCICC)
Website: <https://www.koncicc.org>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Website: en.tjwg.org
Email: info@tjwg.org

“이라크 쿠르드인들, 참사가 곧 반복될까 두려워”



1988년 화학 공격으로 학살된 5,000여 구의 신원미상 유해가 안치된 할랍자시의 사히단 공동묘지(Shahidan Cemetery).

이 중 1,500여 구 유해는 집단묘지에 합동 안치되어 있다. 출처: KONCICC

[아르빌과 서울: 2024년 3월 31일] 이라크 바트 정권이 쿠르드인들을 체계적으로 절멸하려고 쿠르드인 정착지 중 하나인 할랍자(Halabja)에 1988년 3월 16일 화학무기 공격을 벌인 지 36주년이 됐다. 할랍자 학살 추념일을 맞이하여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쿠르드 네트워크 연합(KONCICC, 이하 쿠르드연합)’은 집단살해죄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3월 15일 이라크 아르빌에서 “제노사이드로부터 생명으로(Genocide to Life)”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이라크, 레바논, 모로코, 한국, 영국, 미국 등 세계 각 국에서 집단살해죄와 반인도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온 연사들이 모였고, 쿠르드인 피해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인권단체들과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전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초청받아 쿠르드 인권조사단체인 ‘Crimes Against Kurds (쿠르드인에 대한 범죄, <https://cri mesagainstkurds.org/>)’와 공동으로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벌어져 온 인종 청소 실태보고서를 2022년 간행한 사례를 발표했다. 보고서 “Crimes Against Kurds: The New Ethnic Cleansing of the Disputed Territories (쿠르드인에 대한 범죄: 분쟁 지역의 새로운 인종 청소)”는 이라크 정부, 이란 후원 민병대와 ISIS가 자행한 강제 이주, 살인, 납치, 강간, 방화, 농지 방화와 몰수, 문화적 차별, 고용 차별

실태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 <https://en.tjwg.org/wp-content/uploads/2022/10/The-New-Ethnic-Cleansing-of-the-Disputed-Territories.pdf>

수헤나 메흐라(Suhena Mehra) TJWG 국제협력관은 살인, 납치, 투옥, 고문 등 쿠르드인들이 겪어온 제노사이드와 북한 반인도범죄 간 유사성과 TJWG의 북한에 대한 조사기록 방법과 국제공론화 활동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특히 인권범죄 조사와 기록화, 국제이슈화에서 지도화(mapping) 작업의 유용성을 설명했고, 쿠르드 공동체도 세계의 다른 소수자 공동체 활동에서 시사점을 얻으며 국제활동 성과와 방향을 공유하고 공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흐라 협력관은 최대 피해자그룹으로 여성과 소녀들을 꼽았다. 쿠르드족에 대한 제노사이드범죄와 북한의 반인도범죄 모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노예화, 강제 또는 착취 노동, 인신매매,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SGBV)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최한 쿠르드연합 회원들은 야지디족 여성과 소녀들이 제노사이드뿐만 아니라 대규모 노예화를 직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 일제 식민 치하에서와 현재의 북한 정권 하에서 여성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메흐라 협력관은 야지디족 여성들과 한민족 여성들이 겪어온 반인도범죄를 비교하며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세계사의 교훈을 부각하자고 제안했다.



국제연사들은 스리랑카 타밀인 학살과 살인 로봇(killer robots) 현실화 위험성에 관해 발표하기도 했다. 출처: KONCICC

국제 참가자들이 할렘자 학살 36 주년을 맞이하여 국제 참가자들이 묘소를 참배했다. 출처: KONCICC

국제 참가자들은 할랍자 학살 추념일인 3월 16일 아직 신원이 식별되지 못한 사망자들의 유해가 안치된 사히단 공동묘지(Shahidan Cemetery)를 참배하여 할랍자 학살 사건 피해자들을 추모했다. 이외에도 쿠르드연합은 할랍자 평화박물관, '붉은 감옥' 박물관, 안팔(Anfal) 학살 피해자 추념관, 할랍자대학교 등 참상 기록과 증언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쿠르드인들의 역사로 보존하는 현장방문 행사를 조직하여 각 국에서 모인 연사들이 이 지역에서 벌여져온 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인권범죄들에 대응하여 정의를 세우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고,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쿠르드연합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고 잊혀지지 않아야 할 피해자들을 돕고 장래의 집단살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와 촉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라크 중앙정부에 대하여,

이라크 정부는 2005년의 이라크 헌법 제 132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화학 공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보건·의학·국제적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헌법의 같은 조항에 의거하여 할랍자사와 그 밖의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화학 공격으로 사망한 순교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생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이라크 최고형사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민사법원을 거쳐 화학공격 사망 순교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금전으로 배상하고, 전 정부의 승계자로서 쿠르드인들과 할랍자 시민들에게는 도덕적 배상의 뜻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세계 어디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라크 정부는 화학 무기, 스마트 무기, 백린탄, 집속탄, 핵무기 등의 밀매 방지와 관련된 모든 국제조약과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 할랍자와 쿠르디스탄 지역의 하늘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해당 영공에서는 군사 비행을 금지해야 한다.
- 2006년의 법률 제 5호(집단매장지 보호법)에 의거하여 순교자 재단(집단매장지 부서)을 통해 화학 공격 사망자 집단매장지를 열고 적절한 의식을 거친 후 다시 안치할 것을 호소한다.
- 세계 어디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설립에 관련된 국제 협약들과 OPCW가 내린 결정들을 이행해야 한다.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 이라크 정부의 화학무기 획득을 도운 기업들을 국제법정에 기소하기 위해 '할랍자 피해자 단체(Halabja Victims Organization)'를 지원하고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 2005년의 이라크헌법 제 132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을 이행해야 한다.
- 구 정권 범죄를 국제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누리 알 말리키(Nouri al-Maliki) 총리 시기에 설립한 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쿠르디스탄 지방정부에 대하여

- 할랍자 학살 추념일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현대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추념일을 기릴 수 있도록 특별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 순교자 및 안팔사건 부처(The Ministry of Martyrs and Anfal Affairs)는 내부규정에 따라 할랍자 학살 추념일을 국가적 기림일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매년 3월 16일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할랍자의 비극을 추념해야 한다.
- 할랍자 화학공격 범죄를 국제화하기 위해 최고각료위원회 수준에서 노력해야 한다.
- 보건부를 통해 할랍자 화학공격 부상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필요한 의료 장비, 물품, 의료진을 지원하는 데에 관심을 더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화학폭탄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화학무기 문제에 관한 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 할랍자 화학공격으로 인한 실종아동 기록을 추적하고,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활동과 행정적·법적 문제를 계속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쿠르드연합은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이러한 권고사항을 관련 당국들에 제출하고 실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쿠르드연합(KONCICC) Sarkout Mahmoud(살쿠트 마무드) 언론담당관

“이번 국제회의의 목적은 집단살해죄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고, 집단살해의 참상을 대중에 알리며, 집단살해 방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회의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라크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는 등 일체의 촉구사항이 마련됐다. 아울러 할랍자 영공의 군사비행금지구역 설정,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할랍자 학살 피해자 병원 설립, 화학공격 중 실종된 할랍자 아동들을 찾는 노력을 이라크 정부에 촉구한다.”

쿠르드연합 Hemin Hassib(헤민 하십) 언론담당관

“우리는 쿠르드인에 대한 집단살해 범죄가 세계에 알려지길 원한다. 쿠르드인에 대한 학살이 재발할 우려가 높은 시점이기에 국제회의를 열어 세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자 했다. 이라크군은 지금도 키르쿠크 지역에서 쿠르드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라크가 로마규정을 비준해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됨으로써 이라크와 화학무기를 거래하는 기업들을 기소하고 집단매장지들도 열어 유해들의 신원을 식별하길 바란다.”

여성-평화-안보 연계사안 전문가 Shirine Jurdi (시린 주르디)

“이번 회의에서 조사기록화 작업에 관해 많이 언급했는데, 회의 이후 현장답사로 깨달은 것은 기록은 되어 있지만 기록의 가시성은 낮은 상태라는 것이었다. 쿠르드 시민사회가 국제적인 인권단체 연대에 참여하여 국제무대 활동의 일부가 되길 권하고 싶다. 예를 들어 무기통제연합(Control Arms coalition) 운동, 살인로봇 금지 국제캠페인, 여성-평화-안보 국제운동, 청년 평화-안보 운동 연대에 참여하길 권장한다. 또한 쿠르드인들이 해오고 있는 조사기록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권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선명히 부각할 필요가 있다.”

세계타밀조정위원회(World Tamil Coordinating Committee) A.R.Sriskanda Rajah(스리스칸다 라자) 박사

“이번 회의는 집단살해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범죄에 직면한 쿠르드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피해 이후 수십 년째 펼쳐지고 있는 저마다의 노력과 난관을 조명했다. 이제 국제사회가 이러한 인권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국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실질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권과 자유 수호 센터(Center for Defending Civil Rights and Liberties) Diala Chehade(디알라 체하드) 변호사

“국제정치와 거부권을 가진 국가들은 국제협약 적용을 차단하면서 세계 모든 사람의 이해와 인권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들은 유엔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들을 이행하고 각 국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국제법을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

평화와 법 모로코 센터(Moroccan Center for Peace and Law)와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아프리카 네트워크 북아프리카 지부(African Network o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 North Africa) Hisham Al-Sharqawi (히삼 알 사르카위)

“집단살해 범죄에 관한 이번 아르빌 회의에 참여하여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뿐만 아니라 ‘미네소타 의정서’(Minnesota Protocol)를 통해서도 가해자 면책 불허용 원칙(principle of non-impunity)을 조명하고자 했다. 첫 번째 관찰한 것은 집단매장지들을 다루는 정부 당국의 태도인데, 집단매장지가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당국이 간과했다는 점이다. 유엔은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생사 파악뿐만 아니라 매장지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유전자분석을 통한 신원확인을 촉진해야 한다. 두 번째 관찰은 전환기 정의 구현 차원에서 볼 때 기억의 보존 측면에서 할랍자시와 다른 지역에서 추념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라크 정부가 꽤 잘했다. 할랍자 학살과 안팔 학살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시설 건립이 그러한 예다. 또한 강제실종에 관한 진술을 기록하고 체계적인 고문이 벌어진 몇몇 감옥을 관광객 방문 시설로 바꿔 고통스러운 기억을 보존한 것도 긍정적이다. 이라크의 전환기 정의 경험에는 교훈이 많고 주목을 더 받을만하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Suhena Mehra(수헤나 메흐라) 국제협력관

“비록 쿠르드인에 대한 인권범죄가 법적으로는 '집단살해죄'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지만, 쿠르드인 공동체가 보여주는 회복력은 매우 좋은 모범이다. 참상을 스스로 기록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책임추궁을 요구할뿐만 아니라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훌륭하다. 우리는 상황이 다른 세계 각지에서 모였지만, 집단살해와 반인도범죄 모두 가능할 수 없이 큰 고통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소수집단이 외롭게 고통 받지 않게 하고, 조사기록 작입 경험과 가해자 및 피해자들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협력뿐만 아니라 유엔에 법적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도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쿠르드인들은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고 믿지만, 이제 국제사회가 쿠르드인들의 편에 서서 그런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이다.”

- 끝 -

쿠르드 국제형사재판소 네트워크 연합 (Kurdish Organizations Network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ttps://koncicc.org/>

2013년 3월 쿠르드인 NGO 연합으로 출범한 KONCICC는 이라크가 로마규정을 비준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라크 의회 정치인들과 법률 분야 인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라크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이라크 정부가 로마규정에 서명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https://en.tjwg.org/>

남북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조사기록 단체이다. 아직 억압적 체제로부터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무력분쟁 또는 독재로부터 전환된 사회 모두에서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처럼 현장 접근이 제한된 곳의 인권침해를 조사기록하고 지도로 상황을 시각화하는 데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추가 정보 요청 및 인터뷰 문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Suhena Mehra(수헤나 메흐라) 국제협력관

+82-2-722-1162

suhena.mehra@tjwg.org